

# 강화에 '외국인선원' 건립

### 연등국제선원 28일 개원식... '현대사회 불교역할' 세미나도

외국인들이 한국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외국인 선원'이 강화도에 건립됐다.

강화군 길상면 갈지리 85-1번지 2천3백여평 대지에 법당(16평) 선방(50평) 객실(60평,방8개) 요사(30평) 식당(40평) 등 5동의 건물과 1천여평 농장이 들어선 연등국제선원(원장 원명)이 그것.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외국인 선원은 27일 오전10시 삼존불 점안식을 갖고 이어 28일 오전10시 개원식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불교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도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 노리다 계스님(국제선원) 싱가포르 만칭스님(관자정사) 스리랑카 마한다스님(팔리니아사원) 러시아 일페 일해스님과 미얀마 스님 등이 참여해 각각 불교현실과 이를 통한 불교역할에 대해 토론도 벌인다.

연등국제선원은 선원장 원명스님과 스위스 체코 러시아인 승려 스님과 러시아 행자 2명등 8명이 남주하게 된다. 또한 운영 프로

그램도 다양하다. 선방은 기간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방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1주 혹은 2주 단위의 자체 연수프로그램과 함께 외부단체 수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농장 문턱도 참여할 수 있어 선농일치의 수행활동도 할 수 있다. 불교가 생활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선종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불교는 출가자 위주에서 특히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수행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라 외국인 선원건립을 발원했던 것입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연등국제회관은 외국인들에게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중앙센터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강의(한글교리 불교영어) 영어법회 등이 열린다. (위영란 기자)



◇단독사찰로는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외국인선원의 법당과 선방모습.

## 노인수도원 '보살선원' 기공

### 연꽃마을, 대구에...12월 완공 50여명 수용

노년을 신명생활에 몰두하며 여생을 부처님결에서 수행정진할 수 있는 노인전문 수도원이 교계 최초로 건립됐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3일 대구시 덕곡동 팔공산 자락에 노인들이 좌선 염불등 수행정진하며 수도생활로 회향하도록 하는 수도원 '보살선원' 기공식을 가졌다.

보살선원은 대지 1천여평에 총 건평 3백평규모의 건물 2동이 건립되며 50여명 수용에정도로 12월말 완공된다. 65세이상 불자들에게 한하여 입주할 수 있는 보살선원은 법당 선방 염불당 등 종교 시설 중심으로 설립돼 참선 염불 교학등 수도생활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고, 목욕탕 식당 객실 휴게실등 각종 노인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차적으로 노인전문 병원등 노인보건의료시설을 비롯해 노인여가시설, 노인레포츠시설등 각종 노인복지 편의시설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꽃마을에 연꽃이 없다. 8월30, 31일 전 날 무인군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사암연합회가 후원한 연꽃대축제에는 연꽃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연잎만 무성할 뿐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사하게 핀 백련을 보기 위해서 부푼 기대감으로 모여든 10만여명의 화산연꽃박람회는 일순 실망의 기운이 가득 번졌다. 관광객들은 연꽃의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았으리니 생각들을 하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연꽃이 없는 이유를 알고나면 이번 연꽃축제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마을 주민에따르면 "무안농지개발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방죽을 일반민에게 3년 전에 3년 계약을 맺고 연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업자는 지난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연근을 모조리 채취해 버렸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르는 불자와 관광객들은 간간히 괴어있는 불과 맞승

## 평일공무원시험 발원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특정종교편향 발언과 관련, 3일 신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교계 6개단체 대표 5명은 신한국당 당사를 방문하고 6일까지 이회창대표의 직접해명을 요구했다. <4일 현재>

이날 단체대표자들은 답변을 위해 참석한 신한국당 고홍길 정책특별보좌관에게 '국가시험정책의 발원'에 관한 이대표의 직접적 해명과 사과 및 당의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문화재사찰 입장권을 사찰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소책자형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포교인 포교연구소(실장 효종)는 3일 열린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 자료로 제출한 '문화재사찰 포교방안'에서 기존의 입장권을 △개별 사찰의 역사와 문화 △한국불교 전체를 소개하는 종합 가이드북으로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포교연구소는 "문화재사찰 포교방안"에서 기존의 입장권을 △개별 사찰의 역사와 문화 △한국불교 전체를 소개하는 종합 가이드북으로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포교연구소는 "문화재사찰 포교방안"에서 기존의 입장권을 △개별 사찰의 역사와 문화 △한국불교 전체를 소개하는 종합 가이드북으로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 대전 불교음해전단 배포 '물의'

### 사암련, 규탄법회등 강력대응키로

북한산 일대 방화사건에 이어 대전지역에 이교도들에 의한 불교음해 전단이 다량 배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전단은 대전 중앙승가회(담임목사 이재섭)가 일간지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승려복을 벗고 목사가 된 사람들', '극락실은 사실인가' 등이 다. 이와관련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수·용문사주지)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불교음해를 발표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 선학원중앙선원 '방함록' 발견

### 1935~65년 동·하안거 스님·보살 명단 2권

선학원 중앙선원(원장 성해)에서 1934년부터 1965년까지 동·하안거에 수선 정진한 스님과 보살 명단을 기록해 놓은 <방함록(芳峯錄)> 2권이 발견돼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방함록>에는 안거당시 선방의 소임과 해당 소임자의 범명이 기록되어 있다. 선학원 초대 이사장이었던 만공스님은 조실로서 선학과 '중앙부인선원'의 보살들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선학원이 선(禪)의 대중화에 진력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선학원 설립조사인 남천·도봉·운봉스님 등은 화주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효봉·동산·청담스님 등이 결재했던 것도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30년대부터 기록된 두 권의 <방함록>에는 1912년에 열린 경허스님의 방함록서(序)가 수록되어 있어 필체·내용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 뉴스 & 뉴스

### "환경보존, 경제보다 시급"

사찰환경보존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보완 환경영향평가의 보완 자연환경보존법의 하위법령마련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사찰과 불교의 가치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위원장 능관)가 8월 29일 총무원 1층 법당에서 개최한 사찰환경 침해각종사례와 관련, 환경·제도적측면을 재검토하는 '사찰환경의 보존과 정책'을 위한 환경교과과 공청회'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 서울-경기교사불자회 창립

서울·경기·인천 교사불자회가 19일 창립된다.

준비위원 조건규교사(서울대신교)는 "청소년교과 활성화와 교사들의 신심증진을 위해 불자교사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자교사회에는 포교원에서 지난 해와 올해 개최한 불자교사연수회에 참가했던 1백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 조계종 신도증소지혜택 확대

조계종포교인(원장 성타)은 신도증 소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신도등록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부장 원해스님은 2일 신도등록 10만명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안까지 종단 관련 시설 이용시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며 불자들간의 상호부조를 북돋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동국대병원과 세무사불자회 등 지능단체와 진료비 및 수입료 할인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 대불, 서돈각박사 총재 추대

대불원 총동문화 대불(이사장 명호근)은 31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임시총회를 열고 지도위원 대표이자 총재로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추대하고 대불국제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승인했다.

## 납골시설에 부지 무상제공

### 보건복지부 개정안 신고제 전환...시·도 설치의무화도

앞으로 종교시설의 납골시설 설치 신고제로 완화되고 각 시·도에 납골당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현행 권장사항으로 돼있는 묘지허용면적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국회에 상정하여 장묘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안에 따르면 현재 허용면적이 24평인 개인묘지는 6평으로,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이내로 축소하고 가족납골묘는 9평이내로 제한하며 묘지허용면적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화해 위반자를 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화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교시설이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시·군마다 공설납골당 설치의 의무화 △납골당 공설 묘지 화장장등 신선했을 경우 국공유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8월 29일

생활개선실천 범국민협의회와 함께 대구 명예예술회관에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석문 경북대학교수는 "장묘문화의 사회복지를 위한 '매장'이라는 주제표제를 통해 '개인이 일정기간 묘지사용권만 갖는 시한부 장묘제도와 국가가 화장비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뒤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대할머니 그림전

19개지역 순회

정신대 할머니 그림 순회전시가 19개지역에서 9월부터 3개월간 열리고 있다.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은 '정신대할머니의 그림전(부제 일본군 위안부 그리니 화과 희망)'을 15일까지 일본 큐우슈우 유류지역 '공상의 숲'에서 개최하고 이어 11월까지 3개월간 도쿄 오사카 등 19개 지역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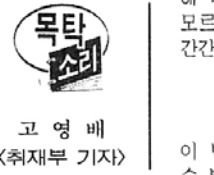
일본불교 대국종파가 협찬하여

각 지역에서 할머니 그림전 실행 위원회가 구성돼 주최하게 될 이번 순회전시회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꽃피는 곳, 풀러남' 故 강경덕 할머니의 '정신대 원귀' 이 용녀할머니의 '군위안소에서' 목욕' 등 그림 30여점과 사진 10여점이 전시된다.

연꽃축제에 연꽃이 없다. 8월30, 31일 전 날 무인군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사암연합회가 후원한 연꽃대축제에는 연꽃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연잎만 무성할 뿐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사하게 핀 백련을 보기 위해서 부푼 기대감으로 모여든 10만여명의 화산연꽃박람회는 일순 실망의 기운이 가득 번졌다. 관광객들은 연꽃의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았으리니 생각들을 하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연꽃이 없는 이유를 알고나면 이번 연꽃축제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마을 주민에따르면 "무안농지개발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방죽을 일반민에게 3년 전에 3년 계약을 맺고 연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업자는 지난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연근을 모조리 채취해 버렸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르는 불자와 관광객들은 간간히 괴어있는 불과 맞승



고영배 <취재부 기자>

##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 권 육신통(육경신)도통·정진법회 권

무위진인 육신통 대용명정진에 입문하시어 대도인의 경지에서 도인·선사·신선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 기도는 주인공과 정열한 기운을 찾아서 심신·정신·육신의 번뇌마잡의 고통을 근본심지에 맞게 성취하는 대용명 정진기도로써, 이 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집신수행도 아니고 이 정진수행으로 敬天動地 聖人出 亦江三日 眞人出 六神通齊出 人出 神出鬼沒正人出 參禪通禪(仙)人出 소림사에서 직승하는 도정경종의 육경신 주문과 기문둔갑 심기선법·오미니비대출·참선 10장생법 강의·풍수지리및 동양철학 특강·개인지도.

六庚申 주문)

임제일 : 97년 9월 14일 을 8.13. (일요일)  
해제일 : 97년 9월 15일 을 8.14. (월요일) 15:00  
회비 : 5만원. (1박 2일 침식제공)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모지원고개 하차)  
전화 : (휴대폰) 017-236-3110  
02-821-6622 (0)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매일법사 합장

## 약(藥)이 되는 신비한 식물 - 백화사설초

### 암을 퇴치하고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입증된 기적의 한국산 약초

신비의 약초 백화사설초 「암」치료에 탁월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간암·백화사설초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백운산에서 자생되는 것을 처음 발견(백운종)이라고도 부른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30cm정도의 푸른 줄을 하며,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약초인 백화사설초(白花)는 「꼭두서니」처럼 생긴 잎에 흰꽃(白花)이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풀 전체를 약용으로 하며 마암 이외에도 각종 염증이나 종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영신농산 대표 김나진자 보살은 이 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풀 전체를 약용으로 하며 마암 이외에도 각종 염증이나 종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불자 운영하는 「영신농산」서 보급 각종 염증·종기·타박상에도 효과

만 치료가 안돼 소문을 통해 들던 타박상에 특효 약초로 쓰인다. 백화사설초를 구입, 달여 복용한 걸 또한 정열해독제(淸熱解毒劑)라고도 부른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30cm정도의 푸른 줄을 하며,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약초인 백화사설초(白花)는 「꼭두서니」처럼 생긴 잎에 흰꽃(白花)이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풀 전체를 약용으로 하며 마암 이외에도 각종 염증이나 종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1997년 7월 16일자 대한불교신문기사 발췌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학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존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이학박사 성철환
백화사설초	일시 : 1998년 10월 31일 2시 30분
주제 발표	1998년 10월 31일 2시 30분 1998년 10월 31일 2시 30분

영신농산총판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 051) 465-5100, 467-5200